

나주극장, 추억 품은 복합문화공간으로

1930년대 건립한 근대 문화시설 역사·장소성 담아... 내년 개관 예정 20~29일 나주축제 기간 홍보 나서

나주는 이중환이 '택리지'에서 '소경(小京)이라 명명할 만큼 유서 깊은 고장이다. 지금의 '전라도'라는 명칭은 고려 현종 때 전주(全州)와 나주(羅州)의 앞자를 따서 생겨났다. '천년 목사골 나주'라는 말에는 역사와 문화, 전통에 대한 자부심이 깃들어 있다. 나주 원도심에는 보존 가치가 높은 공간들이 많다. 그 가운데 나주극장은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 나주전 정비사업과 맞물려 하천에 지어졌다. 당시 소주공장, 잠사(누에)공장 등 산업시설이 하천부지에 들어섰다.

나주극장은 시민들의 추억이 담긴 나주의 대표적인 문화시설이었다. 2층 구조의 관객석은 최대 200명까지 수용할 수 있었으며 1980년대까지 정치, 사회, 문화, 예술 활동을 위한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초까지 운영되다 안타깝게 폐관됐다.

나주극장이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될 예정이어서

서 눈길을 끈다.

19일 나주문화계와 나주극장사업단에 따르면 역사와 장소성을 감안, 나주극장을 '다시 나주극장'이라는 테마의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사업인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으로 선정돼, 원도심 활성화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나주극장은 오는 2024년 개관될 예정이다.

특히 오늘부터 펼쳐지는 나주 축제기간(20~29일)에 나주극장 관련 홍보가 진행된다. 아트 모이모(대표 서지안)는 '2023 나주축제와 함께하는 나주극장'을 주제로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 영상강 둔치 체육공원 일원에서 진행되는 축제에서 재탄생될 나주극장의 다양한 면들을 소개하는 것. OX퀴즈 및 SNS 인증샷 이벤트 등을 매개로 나주극장은 물론 나주를 흥미롭게 경험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서지안 대표는 "나주의 대표 문화공간인 나주극장이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역 문화계와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있었으면 한다"며 "리모델링이 완료되고 나면 친체원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 인근 나빌레라 문화센터, 정미소 등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주극장사업단에 따르면 나주극장 문화재생 사업은 지난 2022년부터 진행됐다. 사업 첫 단계로 나주극장 문화재생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콜로키움'과 '좌담회'가 그것.

'나주극장 문화재생 콜로키움'은 옛 극장 재생을 위한 담론 제시, 사업 설계를 위한 방향 설정에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

'나주극장 좌담회: 답장'은 시민들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수렴에 초점을 맞췄다. 4차례 진행된 좌담회에서는 극장 문화재생의 방향과 가치를 모색하고 기억을 나누었다. 공간재생과 관련한 주민들과의 소통의 자리였다.

2023년부터는 '옛 나주극장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해 문화재생을 구체화했다. '아카이브 구축사업', '시민+예술가 시범프로그램'은 그 일환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이다. 스토리를 토대로 디지털 자원, 미디어아트와 결합한 테크놀로지 극장 및 가변형 문화체 협공공간을 만든다는 복안이다.

구체적으로 아카이브는 극장과 관련된 기록들을 모아 미래유산 자료화를 구축하는 작업이다. 나주극장 공간기록화, 구술채록집 발간, 다큐멘터리 제작 등 다각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개관 88주년 광주극장 영화제



2021년 광주극장에서 손간판 제작워크숍을 진행하는 모습. <광주일보 DB>

20일~11월 6일... 개막작 '어른 김장하' 감독과 대화도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 가운데 하나인 '광주극장'이 개관 88주년을 맞았다. 이를 기념하는 영화제가 열려 화제다.

광주극장과 광주시네마테크는 '개관 88주년 광주극장 영화제'를 20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진행한다.

20일 오후 7시에 열리는 개막행사는 20명 시민이 두 달여 간 작업한 손간판 공개, 극장 건물 계사대에 올리는 상판식이 예정돼 있다. 시민들이 그린 그림을 외벽에 장식해 '시민의 극장'이라는 광주극장의 의미를 환기하는 의도에서 매년 진행해오고 있다.

같은 날(오후 7시 30분) 영화제 개막작 '어른 김장하'가 상영된다. 진짜 어른의 모습을 찾아가는 지역인문 기자의 휴먼 다큐멘터리를 담았다. 상영 후 김현지 감독 등을 초청해 GV를 진행할 예정이다.

1950년대 프랑스에서 일어난 영화계의 새로운 흐름 '누벨바그'를 주도한 감독들의 작품도 스크린에 오른다.

로베르 브레송이 연출한 '사형수 탈출하다', 앙리-조르주 클루조의 '피카소의 비밀' 등은 전통에 혁신을 가미한 작품으로 평가 받는다. 또 누벨바그를 대표하는 장뤼크 고다르의 역작 '국외자들', '중국 여인'도 볼 수 있다.

프랑스 70년대 영화 오스타슈의 '엄마와 장녀', 피알라의 '반 고흐'도 문재자, 실험적 시도를 계승하는 자크 리베트의 '누드모델'을 비롯해 클로드 샤브롤의 '미스터리 스틸러 지옥', '사기', '악의 꽃' 등 90년대 중후반과 밀레니얼 작품들도 상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개봉한 이정홍 감독의 '괴인', 왕민철 '생츄어리'도 스크린에 오른다. '레슬리에게'는 정식 개봉 전 미리 볼 수 있으며, 정주리 감독의 '다음 소희', '볼코노프 대위 탈출하다'를 GV와 함께 마련한다.

관람료 성인 1만 원, 청소년 9000 원. 자세한 내용은 광주극장 홈페이지 참조.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1930년대 지어진 나주극장이 문화재생사업을 통해 2024년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아트 모이모 제공>

로컬 음악과 광고 이야기

ACC, 25일 수요일 음악 감상회·28일 '토요 아카이브 강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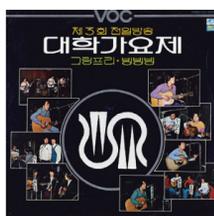
1978년 시작해 1980년까지 열렸던 전일방송(VOC) 대학가요제는 '광주발(發) 전국 히트곡'을 만들었던 청춘들의 가요제였다. 비록 3회를 개최하고 막을 내렸지만, 전일방송 대학가요제는 당시 많은 이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1970년대 후반 광주에서 생산해 전국으로 확산된 대중음악을 듣고 로컬음악의 탄생 이야기와 자리가 마련됐다. 아울러 1960~70년대 가전제품 광고의 주부와 가족 이미지를 인문학적으로 접근하는 강연도 진행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이강현)이 진행하는 오는 25일 '수요일 음악 감상회'와 28일 '토요 아카이브 강연'이 그것.

먼저 25일 ACC 문화정보원 특별열람실에서 진행되는 수요일 음악감상회는 '대학가요제 시대와 전일방송(VOC) 대학가요제'를 주제로 펼쳐진다.

장상은 방송작가가 전일방송대학가요제가 배출한 음악을 듣고 로컬음악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장 작가는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에서 문화예술기획(석사)을 전공하고 문화학(박사) 공부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지역의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이어 28일엔 같은 장소에서 '가정주부에게 세타기를 허하라'를 주제로 '토요 아카이브 강연'이 열린다. 박해천 동양대 교수가 아카이브 자료를 토대로 산업화 시기 광고 이미지를 분석한다.



제3회 전일방송 대학가요제



장상은 방송작가



박해천 동양대 교수

박 교수는 "1960~70년대 주요 가전업체의 광고는 특정 계층의 주부와 가족 이미지를 전유하면서 가전제품의 상징적 위상과 문화적 의미를 지속해서 변형해 나갔다"며 "이 시기 광고 이미지를 분석하고, 현대 라이프스타일의 제안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ACC 이강현 전당장은 "수요일 음악 감상회와 '토요 아카이브 강연' 모두 지역과 도는 지역을 넘어 함께 공유해볼 수 있는 흥미로운 주제들"이라며 "음악도 감상하고 강연도 듣고 또한 이와 관련된 아시아문화박물관의 소장 자료도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깊어가는 가을밤에 울리는 해금 선율

김단비 앨범발매 쇼케이스... 21일 광주보헤미안 소극장

전통악기 해금 선율이 선사하는 음악 축제 'La fiesta'

해금연주자 김단비가 3집 앨범발매를 기념해 공연 'La fiesta'를 오는 21일 오후 7시 광주보헤미안 소극장에서 선보인다. 그동안 자신의 인생 서사에 전착해 온 김씨는 이번 앨범에서 재즈에 몰입, 동서양 악기의 하모니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앨범은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재즈 명곡 'la fiesta', 'Moanin' 등과 '아리랑' 등 포크뮤직에 해금, 국악의 색을 입힌 것이다. 여기에 일본 '카즈미 타테이시 트리오'의 재즈 선율을 더했다.

공연은 'La fiesta', 'Arirang(아리랑)', 'Moanin' 등을 감상할 수 있다. 'Take five', 'On the sunny side of the street', 스코틀랜드 민요를 모티브로 한 '올드 랭 사인'도 울려 퍼질 예정이다.

박시현의 향피리 연주, 장유진의 생황, 이화림의 가야금 연주도 공연장을 채운다. 키보드 연주에 정관영, 유경빈, 드럼에 이다훈



해금연주자 김단비

등. 재즈보컬 김은영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다. 퍼커셔니스트 이정우도 함께 출연해 관객들의 귀를 즐겁게 한다. 한편 이번 공연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3년 청년예술가 생애초기 지원 사업을 지원

받아 제작됐다. 김단비 해금 연주자는 지난 2020년 정규 1집 '해금에세이:피어나다', 2022년 2집 '해금에세이:마음이 향하는 곳'을 통해 내면의 정동을 해금 가락으로 표현해 왔다. 전석 3만 원.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건물 리모델링



갈라강판 지붕공사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농막

옥상스틸방수

M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